

동성애의 실체

동성애의 짙은 화장 속에 감춰진 본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요즘 언론과 방송에서는 동성애의 화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인권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실제 동성애와 대중에게 비춰지는 동성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자칫 동성애의 아름다운 화장발에 현혹되어 동성애자가 된다면 그들의 인생은 곧 멈춰지고 동성애라는 이슈에 갇히게 될 것이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자의에 의해 동성애자가 되기보다는 직, 간접적 경험과 호기심에 의해 동성애에 발을 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호소하고 싶고 동성애의 늪에 빠지기 전에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동성애의 민낯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 박진권 디렉터

탈동성애자이고, 현재 아
이미니스트리 대표이다.

인생을 허비하게 한다.

사과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시기마다 필요한 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 또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의 따가운 햇볕까지 받고 나면 드디어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맺는다. 한 사람이 성장하여 성숙하게 되는 과정도 동일하게 때마다 겪어야 하는 일들, 받아야 하는 사랑들, 배워야 하는 여러 지식들이 있다. 그 시기를 놓치고 지나쳐 버린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란 어려운 일이다. 어느 계절에 찾아온 태풍을 맞고는 부러져 버린다면?

나는 오랜 시간 동성애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았다. 그러한 생활이 나의 시간을 갉아먹고 나의 하나뿐인 인생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너무 어렸고, 또 언제 나 이렇게 젊을 것만 같았다. 삶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씨를 심고 물을 주어야 할 시간에 온통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와 사랑을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외에 어떠한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단순히 길을 걸어갈 때에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유혹들로 힘이 들었다. 지나가는 남자들을 보며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힘들기도 하였다.

나의 인생의 이른 봄에 태풍은 이렇게 찾아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하루는 친척 형 집에 놀러갔다. 형은 나에게 레슬링을 하자

고 권유했다. 형은 탈의를 하고 레슬링을 해야 한다고 했고, 나는 의아해하면서도 단순히 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다. 그날 있었던 한 번의 단순한 경험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있었던 일은 계속 떠오르며 나를 떠나지 않았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도 하지 못했고, 혼자 매일같이 그 생각을 키워나갔다. 이후에도 친척 형과 나는 종종 만나서 동성애적 행위를 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새하얀 도화지에 검은 잉크가 쏟아져 버린 것같이 나의 순수한 사고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전교생이 500명 남짓 되는 학교였다. 나는 4-5명의 친구와 일대일로 동성애적 경험을 하였다. 친구가 나에게 권유하기도 했고, 내가 친구에게 다가가기도 하였다. 이미 친척 형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았다. 겉으로는 또래 친구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시기에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다.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청소년기 때에 이러한 경험을 적지 않게 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문화와 미디어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동성애를 옹호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기도 하고, 동성애 코드를 넣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문을 열어준다면 그 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에 연결되기 시작했다. 성인이 되어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애쓰며 입시를 준비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시기에 내 안에 깊이 파고든 성 중독은 나를 움아매었다. 당시에 나의 이런 고민과 무너진 생활을 부모님에게, 또는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면 어땠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결국 입시에 실패하고 나는 스스로에게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가장 많이 떠올랐던 생각은, 너무도 아쉽다는 것이었다. 인생의 봄, 나의 청소년 시절과 젊은 청년의 때, 그 때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너무도 빨리 지나가버린 시간들... 내가 그 시간들을 빼앗겼구나! 더 많은 책을 읽고, 전공하려고 했던 음악을 더 탐구하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면...

내가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본다. 절제할 수 없는 생각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 이미 너무 많은 경험과 기억들이 굴레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의 삶은 무너져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지..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벗어나서, 세월을 아끼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 안타까운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은 동성애의 짙은 화장에 속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조차도 이 시대의 이러한 패러다임에 속아 오랜 세월 아름다운 사랑, 특별한 사랑을 갈망하며 지낸다. 그러나 십수년 동성애자로 살았던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란 그저 성 중독으로 가는 심각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번 발을 내딛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도 같다. 이러한 현상은 단계가 있다.

먼저는 촉발 사건이 있다. 이때 중독 증상을 일으키지만 경미하다. 하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내가 아직도 어린 시절 친척 형과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 형과 있었던 장소, 그때 했던 말들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태권도장에 갔다가 관장과 그러한 첫 경험을 하고, 누군가는 친구로부터, 누군가는 직장 동료나 군대 상사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처지에 있어 그 상황에서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많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촉발 사건은 대부분 그들이 꿈꾸는 동성애적 이상이 되어 그러한 대상을 다시 만나기를 갈구하게 된다.

그리고 재경험 시기가 찾아온다. 처음 경험한 사건과 재경험 간의 간격이 긴 사람들도 있고, 짧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김없이 찾아온다. 본인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또 다시 타인에 의한 것이든지 찾아오게 되며, 처음 경험한 사람과 다시 경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경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재경험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시간이 지나 중독에 가까워지면,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만나 일회성 관계들을 맺고, 포르노그래피까지 찾게 된다.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순결한 사랑을 주장하며 동성애자들 가운데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지만, 내가 경험한 거의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성 중독 문제에 연관되어 있었고 스스로도 공감하였다. 처음부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동성애자는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에, 더 자극적인 쾌감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성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 동성애자였던 친구의 가까운 지인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그 지인도 동성애자였다. 이외에도 몇 번의 자살 소식을 더 들었다. 동성애자로 살며 우울증, 불안, 수면 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중독은 마음에도 병을 가져오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각종 성병에 취약하여 매독, 곤지름, 사면발이, 각종 염증 등을 호소하는 동성애자들이 많다. 익명성이 강한 동성애의 커뮤니티는 심지어 이름도 나이도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는데, 이는 곧바로 성병과 연결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단연 HIV감염이다. 내가 상담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HIV 감염자들이었다. 그들 모두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어

있었다. HIV에 감염된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을 막아서는 큰 벽 앞에 서게 된다. 지금은 치료할 방법이 생겨서 생명이 지장이 없을 지라도, 평생 약을 먹으며 부작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HIV 감염 자라는 딱지를 떼고 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내가 탈동성애를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외로움이 컸다.

이 부분은 내가 만난 동성애자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20대가 되어서는 동성애자들만 다녔던 술집에 종종 다녔는데, 가끔은 50-60대의 아저씨들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결국 외로워진 모습뿐이었다. 동성을 만나고 헤어지며 20-30년을 넘게 지낸 그들은 결국 혼자였다. 나 역시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지냈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변하는 대상과 아무리 만나도 만족이 되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서로 상처를 받았다. 일반적인 남녀의 연애기간보다 훨씬 짧은 연애기간을 반복했다.

탈동성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 나는 비로소 채워졌으며, 안정감을 느꼈다.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지독히도 외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동성애의 아름다운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만한 합당한 것으로 미화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동성애자들은 상처투성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이전의 나처럼, 자신을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서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외로우면서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또 누군가를 찾지만, 다시 거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다 병에 걸리면 누구로부터 진심으로 용납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동성애의 민낯을 사람들이 알고, 특별히 동성애에 관심이 있는 다음 세대들이 깨달아서 그들 앞에 너무도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